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 사순, 광야에로의 초대

17세기의 위대한 지성이었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비참을 위로해 주는 유일한 것은 오락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비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참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무료함이나 고통, 그리고 나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기란 여간 거북하고 우울한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들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상의 소소한 자극에 눈을 돌립니다. 곧, 갖가지 오락거리에 탐닉하거나 자신의 일에 기계적으로 몰두하며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 중요하지만 암울한 이런 주제들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변적인 것들에 몰두하여 삶의 무게를 회피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알코올중독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술에 의존하여 그저 잊어버리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결코 건강한 삶의 자세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 홀로 서야 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험벗은 땅입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마른 입술을 축여줄 시냇물도, 주린 배를 채워줄

식량도 없고, 긴 여정의 지루함을 달래줄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은 불모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자신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헛된 교만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한함을 직시하며,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갈 덧없는 삶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이렇게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은 인간이 비로소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진심으로 돌아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통과 결핍의 땅인 이 광야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을 직접 뵈옵는 은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광야가 꼭 특정한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여정 중 맞이하는 아득한 절망의 순간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상황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교회는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은총의 시기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광야에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결핍과 고통의 장소, 세찬 유혹의 시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홀로 버려진 듯한 그 절망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참 하느님을 뵈울 것입니다.



### 등촌1동성당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5길 61

동작동성당 등촌1동성당 목동성당



등촌1동성당은 1986년 8월 등촌동성당(현 목3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가 등촌동성당을 관할할 때에 등촌1동성당 설립을 추진했고 자연스레 성골롬반외방선교회에 본당이 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부 부선용 마르티노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였고,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본당 주보로 삼았으며, 이후 본당 관할권이 서울대 교구에 귀속되었습니다. 본당 설립 후 90년 초반까지 부지 내 단추 공장을 보수해 성전으로 사용하다가 신자들의 열망과 노력으로 마침내 2004년 4월 정진석 대주교 주례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전산정보실 부실장